중앙일보 2007년 11월 10일 (토요일)

11·6 선거가 남긴 것

'전략 부재와 분열' 고질병

한인표 갈려져 동반 낙마

〈글 싣는 순서〉

〈상〉 '전략 부재와 분열' 고질병

〈하〉 세리토스, 남가주 한인 정치력 심장부로

11·6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남가주 한인사회는 티나 조 세리토스 칼리지 보드 이사 당선자를 탄생시키는 성공을 맛봤다. 하지만, 폴 강·하워드 김 후보가 ABC통합교육구 위원 선거에서 동반 낙선하는 아픔도 있었다. 이처럼 이번 선거는 한인 커뮤니티에 희망과 실패를 함께 선사했다.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남긴 명과 암을 두차례에 걸쳐 분석한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동안 야심차게 협력을 다짐한 한인 후보와 지지자들의 모습. 앞줄 가운데 남녀가 하워드 김 ABC교육위원 후보와 티나 조 세리토스 칼리지보드 이사 당선자로, 투표일 이후 이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폴 강·하워드 김 한인 후보끼리 대립

단일후보 내세운 중국사회 똘똘 뭉쳐

"중국계한테 호되게 당한 느낌입니다. 참 무사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ABC통합교육구 위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 9명 가운데 8위에 머물며 탈락한 하워드 김 후보의 낙선 소회다.

당초 김 후보 캠프는 중국계 커뮤니티와 연대를 통한 '아시아계 몫 찾기'로 선거운동 초반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양측 현직 정치인들이 지지선언을 교환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조재길 시의원이 중국계 소피아 티 후보를 지지해주고, 중국계 정치인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양측의 교감이 확인된 직후 조 의원은 티 후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냈다. 그러나 김 후보를 지지해줄 것으로 알았던 중국계 정치인으로부터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확실한 약속을 받지 않은 채 성급하게 연대 계획을 추진한 김 후보 캠프의 실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 됐다.

이후 김 후보 선거 캠프는 활력을 잃었다. 전체적인 전략 구상이 헝클어졌고, 한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인 2명이 한꺼번에 나서서 이길 수가 없다'는 비관 여론이 투표일 오래 전부터 돌았다. 오랜 선거 경험을 가진 폴 강 후보가 뛰어든 상황에서, 하워드 김 후보가 출마한게 잘못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불출마 입장을 뒤집고 '3수'에 나선 폴 강 후보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두 한인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오가는 상황에서 득표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두 후보가 적대적인 관계로 접어들면서, 협력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였다.

하지만 중국계 커뮤니티는 달랐다.

처음부터 소피아 티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워 힘을 몰아줬다. 로라 리 세리토스 시장을 비롯한 커뮤니티 내의 주요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섰다.

'아시아계 권익을 보호할 대표주자'로 티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어 갔고, 결국 그는 1위로 당선됐다.

민주당 타인종 동료들과 함께 캠프를 꾸린 티나 조 후보 말고는 한인후보들을 위한 변변한 선거 사무실조차 없었다. 폴 강, 하워드 김 후보가 후원모임을 열 때 마다 모이는 사람은 30명을 넘지 않았다.

투표 당일 자택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개표상황을 지켜본 하워드 김 후보의 초라한 모습은 오늘날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운동의 실상과 무관하지 않은 현실이다.

오종수 기자
jonesoh@koreadaily.com